■ 다시 보는 제주 문학… 끝나지 않는 4월의 문장들

영혼의 떨림 따라 글로 써온 해원의 제문

원로 예술인 회고 사업
장일홍 작가 희곡선 등
4·3소재 작품집 두 권
장편 제외한 12편 망라

장일홍 작가

그는 무혼굿 대신에 글을 재료 삼아 제주4·3 영령들을 위로하는 해원의 제문을 써왔다. 1988년 발표한 희곡 '당신의 눈물을 보여주세요'에서 2018년 '꽃 속에 숨겨진 시간'까지 그의 문학적 여정에 4·3은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작가 스스로도 "무슨 멍에처럼 평생 나를 따라다닌, 동아줄처럼 질긴 인연"이라고 말한다.

제주 장일홍 작가. 그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원로 예술인 지원 회고 사업'으로 4·3작품을 모아 두 권의 작품집을 묶었다. '4·3희곡 선집-불멸의 영혼'(도서출판 연극과인간)과 '4·3작품집-레드 아일랜드'(도서출판 월인)다.

장일홍 작가는 1985년 '현대문학'을 통해 극작가로 문단에 발을 디뎠고 35년 동안 다섯 권의 희곡집과 4·3장편소설 '산유화'(2017)를 냈다. 희곡집에 수록된 35편 중 9편이 4·3을 소재로 쓴 작품이었다. 여기에 단편소설, 뮤지컬, 시나리오를 합치면 4·3 소재 작품은 13편에 이른다.

이번 원로 예술인 작품집에는 장편 '산유화'를 제외한 12편을 통해 4·3을 중심으로 그의 창작 세계를 살필 수 있도록 했다. 고려대 명예교수 서연호의 '극작가 장일홍의 작품에 나타난 인물형 연구', 문학평론가 김병택의 '묶인 이념과 풀린 시대-장일홍의 4·3 문학 작품론' 등 평론 2편도 담겼다.

4·3희곡 선집에는 대한민국문학상 신인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제주도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초연된 '붉은 섬'(1991), 문화관광부의 전통연희개발 창작희곡공모 최우수작으로 연희단 거리패가 '초혼'으로 제목을 바꿔 공연했던 '이어도로 간 비바리'(2000), 4·3당시 제주 주둔 9연대장 김익렬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불멸의 영혼'(2007) 등 7편을 실었다. 4·3작품집에는 한국일보 신춘문예 희곡 당선작 '강신무'(1990), 단편소설 '군마도(群馬圖)'(2007), 희곡 '당신의 눈물을 보여주세요'를 뮤지컬로 각색한 '잠들지 않는 남도'(2001) 등 5편을 게재했다.

장일홍 작가는 후기에서 "4·3은 언제나 웅숭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내 마음의 풍금소리요, 영혼의 떨림"이라며 "이 작은 책을 억울하게 희생된 4·3영령들의 영전에, 그리고 70여 년 동안 남모르게 눈물 흘리며 애통한 세월을 모질게 살아온 4·3유족 여러분께 바친다"고 적었다. 진선희기자

"봄은 겨울과 맞서 싸우는 자에게 온다"

김경훈 시인 '운동부족'
첫 시집 27년 만에 복간
강정 시편 등 근작 더해

1993년 첫 시집 '운동부족'을 내놓으며 김경훈 시인은 "고통받는 사람들과 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 바친다고 썼다. 27년이 흐른 지금 '또다시 자서(自序)'에서 시인은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때와 달라진 게 있다. "많은 이들이 이러저런 이유로 운동을 떠나갔다." 어쩌면 '어느샌가 / 나의 노동에는 땀이 배어있지 않고 / 나의 감각은/ 현상적으로만 흘러/ 앞뒤를 찬찬히 가리는 데 둔해져 있다'('운동부족·3')는 시편은 오늘날 더 유효하게 읽힐지 모른다.

제주대 교수인 김동윤 평론가는 그를 '언제나 현장의 복판에서 시를 실천'하는 시인이라고 했다. 후배 현택훈 시인은 '이육사를 닮은 제주의 저항 시인'으로 그를 칭한다. 에워돌지 않는 언어로 제주4·3을 시에 담아온 김경훈 시인의 '운동부족'이 복간됐다. 절판된 시집을 다시 살리는 한그루출판사와 시옷서점의 복간 프로젝트 '리본시선' 두 번째다.

'운동부족' 복간집은 초판에 실렸던 46편에다 근래 발표한 시 12편을 덧붙였다. '봄은 기다리는 자에게 오지 않고/ 저만치서 머뭇거리며 서성이는 그대여/ 봄은 겨울과 맞서 싸우는 자에게 온다/ 그대여, 봄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들/ 바로 곁, / 바로 가까이에서 어서 오라고/ 손짓하고 있다'('어느 해 봄의 기록')는 오래전 장시의 구절은 '지금은/ 바람이 더 거세야겠다/ 쇠붙이 쎄멘덩이들 싹 쓸어가게'('지금은, 강정에서)란 훗날 시편의 대목과 닿는다. 시인은 강정마을에서, 이덕구 산전에서 '우리는 싸움을 한번도 멈춘 적이 없었노라고' 노래하고 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문화가 쪽지

이애현 첫 시집 '묵은 잠…'

제주 이애현 시인이 첫 시집 '묵은 잠, 뒤적이며'(시와실천)를 펴냈다.

'닿으려는 생각들로 바스락거리는 날'들이 펼쳐지는 이번 시집엔 '낯선 이별' 등 60편 가까운 시편이 실렸다. 지난 기억들은 마디마디 얼룩져 있어도 '사랑한 것도/ 아파한 것도/ 신명난 삶이었다'('묵은 잠, 뒤적이던')는 시인은 '늙은 새의 날갯짓이 / 고단하긴 해도/ 하늘을 이고/ 산다는 것은 축복이리'('미완')라고 노래하고 있다. 탐라문학동인으로 활동하는 시인은 앞서 수필집 '따뜻한 소실점'을 묶었다.

혜향문학회 '혜향' 14호

제주 혜향문학회(회장 김정택)가 '혜향' 14호를 펴냈다.

이번 호는 '질병과 종교'(김정택) 권두언을 시작으로 권두 에세이 '코로나19와 제주사람들'(조인석), 대담 '법화종단을 떠받는 큰 산 보각일 조스님', 논단 '김춘수 시인의 '이중섭' 연작시 연구'(양영길), 문화재탐방 방사탑(한기완) 등을 실었다. 특집에선 서경림 수필가의 대표작, 서평, 작가연보 등을 수록했다. 정성수 작가 등 5명의 시·시조, 수필 초대작품과 회원 작품인 시·시조, 한시, 수필, 소설도 만날 수 있다.

詩(시)로 읽는 4·3 (75)

밀항선은 25시에 떠나네

김성주

오사카로 가는
밀항선은 25시에 떠나네

정뜨르비행장으로 끌려간 아비
이호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쓰러진 어미
둘둘 말은 총소리를 품고 큰
아버지가 떠나네

월남으로 가는
군함은 정오에 떠났다네

가슴에 매달린 훈장보다
통장에 찍힐 숫자의 꿈을 품고
태극기 물결을 누비며 작은아
버지는 떠났다네

오사카로 가는
밀항선은 25시에 떠나네

그 사내
천둥번개의 밤바다에 재물이
됐다고
이쿠노쿠 뒷골목 공장에서 손
가락 두 개 잘렸다고
북송선을 탔다고
총알 탄 소문들이 나를 조준하네

하롱베이로 가는
비행기는 정오에 떠난다네

베트남 정글을 누비던 맹호
여지없이 쓰러지던 사냥감들

오사카로 가는
밀항선은 25시에 떠나네

그 시절 제주사람들은 환난을 피하여 밀항선을 탔다. 해방이 돼 환국한 사람들이 다시 밀항선에 몸을 실었다. 그 밀항선이 25시에 떠난다. '25시'는 1949년 발표된 C.V. 게오르규의 소설 제목이다. 하루의 24시간이 모두 끝나고도 영원히 다음날 아침이 오지 않고 아무도 구원해줄 수 없는 최후의 시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25시는 현재의 시간일 수 있다.

옛 제주도 관문인 제주항 산지부두는 떠나는 사람들을 눈물로 배웅하는 이별의 장소였다. 그 시절 환난을 피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주항을 통해 들고났을까? 누군가는 죽음을 피해 떠났고 누군가는 이별을 슬퍼하며 발길을 돌려야 했다. 컴컴한 어둠에 영문도 모르고 실려 나간 이후 영영 돌아오지 못한 이들. 제주항 맞은편 주정공장에 잡혀있던 사람들이다. 주정공장은 당시 수용소로 활용됐다. 산지항은 군법회의에 의해 육지부 형무소로 끌려가는 도민들이 떠났던 바로 그곳이다. 목포로 대전으로 인천으로 부산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다수가 산지항에서 배에 태워져 바다에 수장되기도 했다. 특히 1948년 겨울 희생자의 시신이 사라봉 인근으로 떠올랐다는 증언도 있다. 1950년 예비검속 수감자들이 산지항을 통해 바다에 실려나가 수장됐다는 증언도 있다. <김관후 작가·칼럼니스트>

우도창작스튜디오 자우녕 개인전

제주섬 동쪽 끝 우도에서 건져올린 사연들이 설치 작품이 되었다. 우도 창작스튜디오 갤러리에서 펼쳐지고 있는 자우녕 개인전이다.

'섬은 상징이 되고 상징은 섬이 된다'란 이름을 단 이번 전시에서 자우녕 작가는 우도 바람에 뒹구는 나일론 끈, 철사, 제기, 냉장고 선반, 광고판 등을 작업의 재료로 끌어왔다. 그것들에 미묘한 자연의 변화를 알아채고 날씨를 예보하는 우도 사람들의 일상이 입혀져 섬의 생활사를 표현하는 장치가 된다.

온몸으로 생을 견뎌온 해녀, 어부 등 섬 사람들은 사방으로 날아드는 폭풍우마저 의연히 맞는다.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 오늘날의 고통과 두려움도 언젠가 과거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바람의 뼈', '노을이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입춘대길' 등을 만날 수 있다. 전시는 이달 12일까지 이어진다. 진선희기자